



K리그1 왕좌는... 생존 경쟁도 예측 불허

내일 개막 파이널 라운드서 울산-대구·전북-상주 격돌 최하위 인천은 벼랑 끝 경기... 승점차 적어 반전 관심

2020시즌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의 왕좌를 향한 접전과 생존 다툼이 이제 5경기만을 남겼다.

하나원큐 K리그1 2020은 26일 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 삼성과 FC서울의 23라운드 '슈퍼매치'를 시작으로 파이널에 돌입한다. 파이널A에서는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출전권 획득을, 파이널B에서는 K리그 잔류를 향한 승부가 펼쳐진다.

상위 그룹인 파이널A에서는 '승점 2 차이' 1·2위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우승 경쟁이 단연 관심사다. 두 팀은 10월 25일 26라운드에서 만

나는데, 일단 그전까지 부지런히 승점을 쌓고 맞대결에서 승기를 굳혀야 하는 상황이다. 울산과 전북은 올해 대한축구협회(FA) 결승에서도 맞붙어 사상 첫 '더블(한 시즌 2개 대회 우승)' 도전이 가능해진 터라 리그 우승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은 27일 파이널 첫 경기에서 대구FC와, 전북은 상주 상무와 각각 원정에 나선다. 울산은 대구와의 지난 맞대결에서 1-1로 비겼고, 전북은 상주와의 시즌 첫 맞대결에서 패한 적이 있어 쉽지 않은 상대들이다. 두 팀 다 주중 FA컵 준결승을 치렀기에 체력 안배도 중요할 것

으로 보인다.

3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38·41득점)도 산술적으로 우승 도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전북과 승점 차가 두 자릿수라 일단 ACL 출전권 획득이 지상 과제다.

포항은 22라운드에서 극적으로 막차를 타고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파이널A에 오른 광주FC를 27일 안방으로 불러들여 파이널을 시작한다. 포항으로선 23일 울산과의 FA컵 준결승전에서 승부차기 혈투 끝에 패한 신체적·정신적 여파를 극복하는 게 급선무다.

올해는 K리그1 1·2위 팀 중 FA컵 우승팀이 나올 공산이 크고, 현재 4위인 상주상무(승점 38·29득점)가 이 성적을 유지해도 ACL에 출전할 수 없어서 K리그1 5위까지도 ACL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마지노선인 5위를 현재는 대구(승점 31)가 지키고 있지만, 6위 광주(승점 25)도 박진섭 감독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다크호스 같은 팀이 되겠다"고 선언한 터라 ACL진입 경쟁도 주목된다.

올해 K리그1에서는 상주가 이미 강등을 확정해 상주 외에 최하위 한 팀만 내년 2부로 강등된다. 여전히 강등에 가장 가까운 12위는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18)다.

하지만 그 위의 11위 수원(승점 21·20득점), 10위 부산 아이파크(승점 21·21득점)가 인천과의 격차를 승점 3 밖에 두지 못해 언제든 최하위 팀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간발의 차로 파이널A를 놓친 7위 서울, 8위 강원도 아직은 인천과 승점 차가 다소 여유 있는 편이지만 안심할 수만도 없는 이유다.



"나이는 숫자일 뿐"... 53세 미우라 J리그 최고령 출전 기록 일본 프로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미우라 가즈요시(53·요코하마FC)가 23일 일본 가와사키 도도리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J1 18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만 53세 6개월 28일의 나이에 그라운드를 밟은 그는 2012년 나카야마 마사시가 45세 2개월 1일에 세운 J1 최고령 출전 기록을 넘어섰다.

'축구계 별' 메시·호날두 시대 저무나

세계 축구계를 양분해 온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유럽축구연맹(UEFA)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에서 빠졌다. 둘 다 최종 후보 세 명 안에 들지 못한 것은 이 상을 제정한 이래 10년 만에 처음이다.

UEFA는 23일(이하 현지시간) 2019-2020시즌 올해의 남자 선수 최종 후보 세 명을 발표했다. 케빈 디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마누엘 노이어(이상바이에른 뮌헨)가 최종 명단에 들었다.

디브라위너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3골 20도움을 기록하며 유럽축구 도움왕에 올랐다. 레반도프스키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15골로 득점 1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 시즌 총 47경기에 출전해 55

UEFA 올해의 선수 후보 세 명 상 제정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골을 몰아넣으며 바이에른 뮌헨의 '트레블' (3관왕)을 이끌었다. 바이에른 뮌헨의 주장인 골키퍼 노이어도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6번의 '클린 시트'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며 팀의 트레블에 큰 힘을 보탤었다.

UEFA 올해의 선수는 국제에 상관 없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한 시즌 동안 클럽이나 국가대표팀에서 낸 모든 성적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시상식 '단골손님'이었던 메시와 호날두는 모두 최종 후보에서 빠졌다. 최종 후보 3인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메시는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와 함께 53표를 받



사진 왼쪽부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아 공동 4위에 머물렀다.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41표),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39표), 티아고 알칸타라(바이에른 뮌헨→리버풀·27표), 요주아 키미히(바이에른 뮌헨·26표)가 뒤를 이었다. 호날두는 25표로 10위에 처졌다. 메시와 호날두가 모두 최종 후보

에 들지 못한 것은 UEFA 올해의 클럽 선수 대신 2010-2011시즌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시상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9차례 시상에서 호날두는 모두 최종 후보에 올라 가장 많은 세 차례나 수상했고, 메시도 6번 최종 후보에 든 두 번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PS까지 1승"... 류현진 나선다

오늘 오전 양키스전 등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포스트시즌(PS) 진출에 필요한 매직넘버를 '1'로 줄였다.

에이스 류현진(33)이 25일 오전 7시 37분(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세일러 필드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 등판해 승리하면, 토론토는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복귀한다.

토론토는 24일(한국시간) 양키스의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를 무너뜨리고 14-1로 크게 이겼다. 다나카는 4이닝 동안 홈런 1개 등 안타 8개를 맞고 5실점(3자책점) 했다.

토론토 선발 로비 레이는 4이닝 1실점(비자책점)의 호투로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포수 다니 잰슨이 4타수 4안타 3타점의 불꽃타를 터뜨렸

고 캐번 비시오(2타점), 보 비셋(2타점), 블라디미르 게레로(3타점) 등 야구인 2세 삼총사가 7타점을 합작했다.

시즌 29승 27패를 거둔 토론토는 1승을 보태거나 포스트시즌 막차 경쟁팀인 시애틀 매리너스가 1패를 하면 남은 3경기에 관계없이 가을 야구 진출권을 확보한다.

'올림픽 강행' 발맞추는 日정부·IOC "코로나 확산 기폭제 될라" 우려 여전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때문에 내년 7월로 1년 연기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강행하는 쪽으로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3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전화회담을 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연기해 놓은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약 15분간 진행된 이 협의에 동석한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올림픽상(장관)은 스가 총리와 바흐 위원장이 대회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바흐 위원장은 내년 대회 개최와 관련해 한층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바흐 위원장은 22일 IOC 웹사이트에 올린 공개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대책이 제한된

속에서도 여러 스포츠 대회를 통해 올림픽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게 됐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IOC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은 도쿄 대회가 취소될 경우 여파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까지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와 IOC가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내년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지난 7-8월 도쿄에 분사를 둔 기업 3327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도쿄올림픽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취소'를 꼽은 곳이 30.7%로 가장 많았다. 또 22.4%는 연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모집직종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